

3野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재검토 필요”

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경제문제 연일 맹공

야권이 경제문제를 놓고 연일 여권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보수인 자유한국당만 아니라 범보수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과 중도·진보 진영의 민주평화당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30일 ‘문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는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국가가 전부 원가를 공개하겠다니까 아마 시중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 이게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먹방에 대해

서 규제를 한다.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먹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자체가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정부에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면서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말씀했다”며 “먼저 문 대통령은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부터 확실하게 인정하고 전면 폐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 정책을 전환하는 거라면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며 “그러지 않으면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성장과 경제 선순환을 막고 있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의 우군인 평화당도 날을 세웠

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그대로 고집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약이행이라는 나무를 지키려다가 일차리와 경제활성화라는 숲을 망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민심과 민생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맨 왼쪽) 당대표 후보가 3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윤상원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온 이해찬 “한전·광주형 일자리 당 차원 지원”

시의회서 민주당 대표 출마 회견…“호남서 지지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이해찬 의원은 30일 광주를 찾아 “한전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지역 일자리 사업 확충을 위해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협안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경우 호남지역 산업을 일으키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 점 그리고 현대차 투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일자리 창출까지 끌어낼 것이라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전 이전 이후 에너지 기업

1000개 유치까지 나왔고 현대차도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지역 일자리 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혁진영이 20여년간 연속적으로 집권해 개혁정책들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정치적 소임을 갖고 당 대표에 출마했다”며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지역 지지도에 대해서는 “아직 초반이라 뚜렷한 흐름을 잘 모르겠으나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본다”며 “여론조사 결과 1위로 나오고 호남에서도(지지율) 같은

것이다”고 내다봤다. 민주당과 협치와 관련해서는 “협치하지 않고는 다른 일을 못 한다”며 “연대와 협치를 해서 법안 예산을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됐다”고 전했다. 또 “촛불혁명 이후 9년만에 집권에 성공했고, 대통령 취임 1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됐고, 6·13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며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사된 것은 처음이다. 새로운 역사적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으며, 회견 후에는 현대차 투자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빛그린 산단을 방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의당 지지율 12.5% 리얼미터…창당후 최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반면 지난주에 원내대표인 고(故)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1%로 전주 대비 1.8%포인트(p) 내렸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p 오른 33.3%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60.8%·올해 1월 4주차)에 근접했다. 일간 집계로 보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27일 59.8%로 떨어져 지난 1월 25일(59.7%)의 일간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4.0%(0.6%p ↑)로, 지난 주에 비해 소폭 올라 내리세가 멈췄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0.3%p 오른 18.6%로 2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했다. 정의당은 한 주 전보다 2.1%p 오른 1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7월 2주차(11.6%)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2주 만에 경신한 것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열렸던 27일 일간 집계로 15.5%까지 올라 처음으로 15% 선을 넘어섰다. 바른미래당은 7.0%(0.7%p ↑)로 4개월여 만에 다시 7%대를 회복했지만,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2.9%로 0.3%p 하락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반면 지난주에 원내대표인 고(故)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1%로 전주 대비 1.8%포인트(p) 내렸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p 오른 33.3%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60.8%·올해 1월 4주차)에 근접했다. 일간 집계로 보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27일 59.8%로 떨어져 지난 1월 25일(59.7%)의 일간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4.0%(0.6%p ↑)로, 지난 주에 비해 소폭 올라 내리세가 멈췄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0.3%p 오른 18.6%로 2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했다. 정의당은 한 주 전보다 2.1%p 오른 1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7월 2주차(11.6%)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2주 만에 경신한 것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열렸던 27일 일간 집계로 15.5%까지 올라 처음으로 15% 선을 넘어섰다. 바른미래당은 7.0%(0.7%p ↑)로 4개월여 만에 다시 7%대를 회복했지만,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2.9%로 0.3%p 하락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 내달 18일 등록

비대위, 전대 일정 확정

바른미래당이 30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2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 1일 선거일을 공고하고, 같은 달 17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9·2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8명 이상일 경우에만 20일 예비경선을 개최, 6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대표에 오른다. 본 선거 투표는 케이보팅(K-voting·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과 ARS투표로 진행한다. 경선 일정 등 구체적 경선 틀은 31일 결정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 재

선인 김성식·하태경 의원, 이준석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장성민 전 의원은 당권 도전 선언을 이미 했다. 특히, 손 고문은 이날 폭염 피해가 극심한 전남 순천 닭 농장과 나주 인삼밭 등을 찾아 농민들을 위로했다. 손 고문 측 핵심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출마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당 내외 인사들과 소통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이 바른미래당 당권의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의 책임당원 분포에서 호남세가 강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결국 호남 당원들과 호남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당권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회찬 처럼...앞으로 가겠습니다”

정의당, 대국민 추모 열기 감사 인사

정의당 의원들은 30일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뜨거운 추모 열기를 보여준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정치가 좌우로 흔들릴 때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노회찬처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심상정·김종대·윤소하·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감사인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국민 여러분이 노회찬의 빈자리를 채워달라. 정의당이 잘 갈 수 있도록 재직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께서 빈소를 찾아주셨다. 저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신 건 국민 여러분”이라며 “누구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노회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에 해남 출신의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를 직무대행에 임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 대표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께서 빈소를 찾아주셨다. 저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신 건 국민 여러분”이라며 “누구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노회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에 해남 출신의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를 직무대행에 임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봉하마을 간 김병준 “통합 향해 가야”

권양숙 여사 비공개 면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통합’을 강조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행보의 일환이었지만,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면서 보수의 구원투수로 나선 그의 이력 때문에 정치권의 시선은 날달랐다. 그는 자신의 “봉하마을행”을 둘러싼 당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통합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묘역 방문목에는 ‘모두, 다 함께 잘사

는 나라’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국립현충원의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찾은 뒤에도 방문목에 같은 글을 남겼다. 한국당 지도부가 봉하마을을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 역시 노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까지는 참석했지만, 이후로는 ‘추도식의 정치화’를 이유로 스스로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황우여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후 한국당 계열 당 지도부로는 처음으로 권양숙 여사를 30분간 비공개로 만났다. 김 위원장은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봉하마을을 찾은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류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2천	① 서구 영촌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①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7평) ▶ 감평가 12억2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20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②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8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상가)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 3억5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영안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암동 남양이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합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